

날이 몹시 차군요.내가 사는 이곳은 서울보다 한 2-3도 낮은데다 추우니까 내린 눈이 잘 안녹아서 매일 눈치우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합니다.지금도 강아지를 데리고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밟으며 뒷산을 올랐다가 돌아와서 또 눈을 치웠습니다.내일은 차를 움직여야하는데 집앞 언덕길이 아직도 좀 위험해서.....지난 18일 눈이 평평 내리는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차가 대책없이 미끄러져 내리는 어질어질한 경험을 다시는 하고싶지 않아서 부지런히 눈을 치워댑니다.

세미나도 끝나고, 세미나를 두고 반이정 홈페이지에서 오가던 논쟁도 끝나고 작품도 철수하고.... 이제 남은건? 그러치요 . 엠티지요. 2월 초 썸으로 함 추진해 보세요.

전시에 대한 관객의 비판 중에 전시장 구성이 산만하다, 써바이벌이란 주제에 개개인이 얼마나 깊이 천착했는지 모르겠다, 썸 주제에 의해 개개인이 가려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만한 전시구성이란 비판에 대해선 조감독이 적절한 답을 했었던것 같고, 써바이벌이란 주제에 개개인이 얼마나 천착했는지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고...(써바이벌이란 주제를 개인이 자신의 작업 ‘내부’에서 풀어가려는 사람이 있었는가하면 전시의 컨셉에 맞춰 자신의 작업을 재배치함으로써 ‘외부’에서 풀려는 시도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감독은 봅니다. 예컨대 이은미와 문정혜의 작업의 경우....) 감독은 썸 기획에 의해 개개인의 작업이 가려졌다는데에 한마디 코멘트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이 써바이벌 게임전은 ‘공공미술’ 이라고 감독은 봅니다. 우리는 ‘졸업전시’라는 ‘공공적’ 주제를 내걸고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았던가요? 아시다시피 공공미술은 개개인의 독창적 개성의 표현보다는 공공적 문맥에 얼마나 충실히 복무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졸업전시라고하는 우리 미술의 한 현상’을 공공적인 문제로 삼고 나온 전시인 이상 전시의 내용이 얼마나 그 문제를 잘 드러내고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개개인이 얼마나 독특하게 미술적 완성도를 성취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감독은 ‘주제에 의해 개인이 가려졌다’는 비판을, ‘주제에 복무하느라 개인의 독특한 개성의 표현이 빛나는 작품을 찾아볼수 없었다’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반론을 해보는겁니다. 이번 전시에서 개개인은 어느 의미에선 자신을 ‘죽이고’ 참여했다고 감독은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를 값지게 봅니다. 사실 4년을 결산하는 졸업전에서 자신을 죽이고 주제에 복무하는 작업을 한다는건 그리 쉬운일이 아니지요.

런던 근교의 한 계획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유명한 곳이고 많은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라더군요. 그곳에서 감독은 공공미술 한점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어느 숲속의 공터에 시멘트로 발라만든, 무슨 짐승을 표현한게 틀림없으나 뭘지는 잘 모르겠는 조각품이 놓여있더군요.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곳 공사장 인부들이 한가한 시간에 만든 조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운주사의 돌부처들처럼 ‘졸박(拙朴)’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갖는 공공적 의미를 예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비판 한다는 것은 얼마나 촛점이 안맞는 것입니까? 이번전시에 대한 비판중 일부가 비유컨대는 이렇다는 겁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우리의 전시는 ‘졸업전’이라는 공공적인 주제를 쟁점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고로 우리의 전시는 성공이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공공미술에 함 관심을 가져봄이 어떨지? 미술인 회의 가입해서 공공 미술 분과에 들어가면 공부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며칠더 추울꺼라고 하네요. 찬바람 쐜~~~~~ 감독의 헨폰, 메일 박스도 찬바람 쐜
~~~~ 냉장고. 음...추워....